2017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나*	학번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7. 6. 25. ~ 7. 16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대학위치는 시내와 가까웠다. 규모는 순천향대보다 더 크고 다 평지에 있었다. 시설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기 편하도록 잘 갖추어져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숙사에 주방이 있고 여가시간을 보낼만한 시설들이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반 한국 대학과 비슷하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보였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내용은 웹디자인이라고 듣고 가서 프로그래밍 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웹페이지 만드는 거였다. 가기 전에는 한국인들끼리만 수업 듣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쪽 학교 학생들과 1:1 파트너처럼 같이 들어서 정말 좋았다. 과제는 수업시간에 파트너와 다 같이 하였고 수업이 전반적으로 아주 어렵진 않았다. 컴퓨터실 컴퓨터가 느려서 수업이 조금씩 딜레이 되고 잘 안돌아 간 적은 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필드트립은 야외활동과 강의듣기였다. 준비물은 해가 뜨겁기 때문에 자외선차단제 필수이고 모자 선글라스이다. 추가비용은 지불한적 없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현지 기후는 매우 햇빛이 강렬하지만 전혀 습하지 않다. 매우 건조하다. 로션과 선크림 필수. 3주 있는 동안 비는 한번도 오지 않았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안전한 편이다. 밤에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기숙사에서 야생동물들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위험하지 않다.
숙소	학교기숙사(ㅇ)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 규칙은 우리학교 규칙과 비슷하다. 단 통금이 없다. 시설은 기숙사에 주방이 있고 피아노도 있고 여가시간을 즐길만한 오락거리들이 많았다. 기숙사는 2인1실이고 침대 밑에 각자 책상이 있었다. 침대 오르락 내리락이 힘들었다. 옷장은 글빌 보다 크다.
식사	학교식당 (ㅇ) 외부식당 (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주로 학교식당에서 먹었다. 샐러드와 과일이 기본으로 나오고 메인 요리들이 나왔다. 외부식당은 주말이나 휴일에 학교식당이 문 닫았을 때 갔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한국음식(김밥, 잡채 불고기)를 만들어 줬고, 장 봐와서 우리끼리 해먹은 적도 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시내교통은 이용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차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밖에를 나갈 수가 없다. 주로 미국 친국들이 라이드 해주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1,300	출국 전 사전 납부
항공료	1,058,700	개별구매
용돈	300,000	$261($40남음)
합계	1,39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현지 학교 학생들과 교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갔다. 알고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가기 전에 글빌에서 알았던 외국인 친구가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더 빨리 적응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다. 가기 전에 학교 측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외국인 포함) 미리 만나보거나 얼굴이라도 한번씩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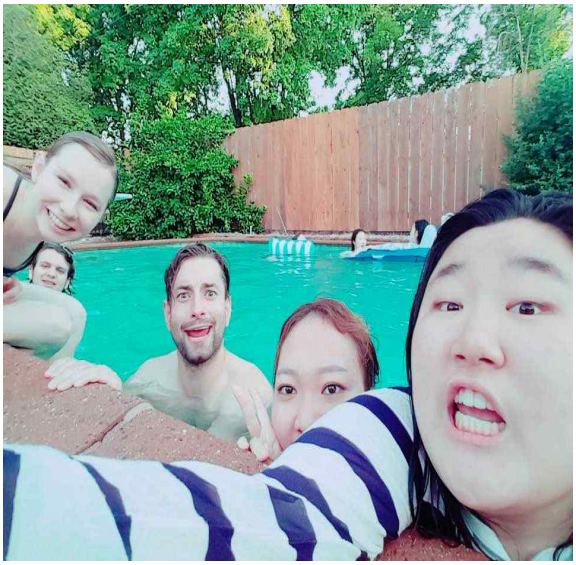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상만 하다가 실제로 가보게 되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좋고 나와 잘 맞는다는 것을 느꼈다. 졸업 후에 다시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거기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도 정말 우리를 잘 챙겨주고 도와주어서 고마웠다.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면 거꾸로 우리가 잘 챙기고 도와주기로 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우리학교에 있는 Global Day와 비슷한 Multicultural Day at Chico State

SunDial Bridge 밑에서...

		
필드트립-Science Health Center		Pool Party!!